

## ‘전남 최대 오리산지’ 영암시 확진...농장 간 수평 감염 우려

2년 11개월만에 전남 지역 고병원성 AI 검출  
반경 3km 이내 닭·오리 50만2800마리 살처분  
10km내 가금농장 30일 간 이동제한·검사 강화

전남지역 최대 오리산지인 영암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된 가운데 전남 도와 영암군이 이틀째 살처분과 매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지역 고병원성 AI 확진은 2년 11개월 만에 방역당국은 영암 인근인 나주와 무안, 해남, 함평 등으로 농장 간 수평 감염이 우려돼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영암군 시종면 한 육용오리 사육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

해당 농장은 전남동물위생시험소의 도축 출하 전 검사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돼 농립 축산검역본부가 정밀검사를 했다.

전남도는 지난 5일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오리 9800마리와 반경 3km 이내 가금류 사육 농장 10곳에서 사육 중인 닭 35만9000마리와 오리 13만4000마리 등 총 50만2800마리를 살처분했다.

이날 현재 해당 농장과 인근 농장 4곳의 닭·오리는 모두 매몰을 완료했고, 7개 농장의 닭·오리는 매몰작업을 진행 중이다.

전남도는 AI 발생 농장 마을 입구 등 10km 안에 이동통제 초소 26곳을 설치하고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오전 22개 시·군 부단체장과 AI 대응 영상회의를 갖고, 오후에는 영암군 재난대책본부를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한다.

방역당국은 발생 농장 반경 10km 내 가금농장 44곳을 대상으로 30일 간 이동제한 및 AI 예찰·정밀검사를 한다. 영암군 소재 모든 가금농장은 7일 간 이동이 제한된다.

발생 농장 반경 10km에는 농장 54곳에서 닭 157만3000마리, 오리 64만2000마리를 사육 중이다.

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앞서 지난 5일 오전 1시부터 7일 오전 1시까지 전남지역의 가금농장·축산시설·차량, 해당 농장에 속한 계열화 사업자 소속 가금농장, 축산시설·차량 등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농장 간 수평 전파를 막기 위해 축산차량은 가금농장·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해야 한다. 종오리농장은 종란(種卵)을 별도 장소에서 환적하고, 출입차량·사람을 철저히 통제·소독하는지 점검한다.

영암군과 인근 6개 시·군(무안·나주·화순·장흥·강진·해남)에는 기존 방역차량과 함께 광역방제기·살수차·드론까지 소독장비를 집중 투입하고 있다.



5일 오전 고병원성 조류독감(AI) 의심 가축이 발생한 전남 영암군의 한 육용오리농장에 대한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영암은 전남 최대의 닭·오리 사육지역으로 49개 농장에서 185만9800마리를 사육 중이며, 인근 나주에서는 7개 농장에서 15만8600마리, 무안에서는 7개 농장에서 19만63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전남지역의 닭 사육농가는 297가구에 2000여 만 마리, 오리는 267가구에 500만 마리 가량이다.

전남에서 AI가 발생한 것은 2018년 1월 이후 2년 11개월 만이다.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는 전북 정읍과 경북 상주에 이어 세 번째다.

지난달 30일 순천만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H5, H7형 AI 항원이 검출돼 고병원성 여부를 정밀검사 중이다.

순천만 인근 500m 이내에는 가금류 사육농

가 없으며, 3km 이내에는 2가구에서 닭 14만 9000마리, 1가구에서 메추리 6만여 마리를 사육 중이다.

전남도는 순천만 출입 지점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방역작업을 했다.

영암=조대호기자

## 기아차 노조, 오늘 '15차 교섭' 결렬시 또 파업...생산차질 지속

내일부터 11일까지 부분파업 예고  
‘잔업 30분 보장’ 관철까지 힘겨루기

9년 연속 파업 기록을 써나가고 있는 기아 자동차 노조가 ‘잔업 30분 보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또다시 부분파업 실시를 예고했다.

연속되는 부분파업은 사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생산라인 가동 일시 중단사태와 겹치면서 실적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를

낳고 있다.

6일 기아차에 따르면 노조는 7일 오후 2시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공장에서 ‘제15차 교섭’을 진행하고 결렬시 8~11일까지 나흘간 3차 부분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교섭이 열리는 7일은 정상 근무를 하지만 결렬될 경우 8일 1·2조(주·야간) 2시간씩 하루 총 4시간 부분파업을 통해 조업을 일시 중단한다.

9~11일까지 사흘간은 파업의 강도를 높이

기 위해 1·2조 각각 4시간씩 하루 총 8시간까지 파업 시간을 늘린다.

부분파업은 광주공장을 비롯해 경기 광명 소하리, 화성공장 전체 사업장에서 진행된다.

광주공장은 전체 근로자 6800여명 중 필수 인원을 제외한 6500여명이 파업에 동참한다.

특히 광주공장은 사내 축구동호회 발로 코로나19 확진 환자 6명이 발생해 일부 공장의 생산라인 가동이 두 차례 일시 중단되는 사태를 겪어서 지속되는 부분파업에 대한 지역민

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기아차 노조는 지난달 24일 진행된 제 14차 본교섭에서 사측과 ‘30분 잔업’ 복원과 관련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지난달 25~27일까지 사흘간 매일 주·야간 4시간씩 1차 부분파업을 실시했다.

이후 쟁의대책위원회는 사측을 압박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2차 파업 실시를 결정하고 12월 1·2·4일 사흘간 부분파업을 강행했다.

기아차 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30분 잔업 복원’, ‘기본급 12만원 인상’, ‘영업이익 30% 성과급 배분’, ‘정년 60세에서 65세 연장’, ‘통상임금 확대 적용’, ‘노동 이사회 도입’, ‘전

기·수소차 모듈 부품 공장 사내유치’ 등을 제시했다.

기아차 광주사업장은 1공장 셀토스·쏘울, 2공장 스포티지·쏘울, 3공장 봉고트럭·군수용 차량·대형버스 등 하루 약 2000여대의 차량을 생산 중이다. 한해 최대 생산능력은 62만대이며, 지난해 45만5865대를 생산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글로벌 부품 공급 차질에 따른 임시 휴업과 사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생산라인 일시 가동 중지, 연쇄 부분파업 여파 등으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신봉우기자

###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 스카우터  
**한수원**